

삼성전자, 美 에너지스타 Excellence Award 수상



삼성전자가 美 환경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실시하는 '2009 에너지스타 엑설런스 어워드 (ENERGY STAR Excellence Award)' 수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31일 (현지시간) 美 워싱턴DC 소재 메리어트 워드맨 파크 호텔 (Marriott Wardman Park Hotel)에서 개최되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고효율 친환경 제품을 출시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스타 인증 취득, 친환경 마케팅과 소비자 교육 전개 등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 성과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에너지스타 인증 취득 제품이 누적으로 약 1,000여개 모델에 이르며 올해에도 TV, 세탁기 등 600개 이상의 모델에 에너지 스타 인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또한 EPA 재활용 파트너십인 'Plug-In To eCycling'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며, 작년 10월부터 삼성전자 재활용 프로그램인 'Samsung Recycling Direct'를 시행중

이다.

올해 1월에는 물류부문 온실가스 절감프로그램인 'SmartWay Transport' 파트너십 인증을 EPA로부터 취득하여 미주 지역 환경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CS환경센터 박상범 전무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고효율 친환경제품 출시 확대와 온실가스 절감활동 등 다양한 Global 환경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빛의 TV - LED TV' 판매 돌풍



삼성전자가 지난 달 17일 처음으로 선보인 기존 TV와 선을 갖는 '빛의 TV-LED TV'가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고객 (소비자, 판매 매장)으로부터 큰 관심을 얻으며 판매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LED TV(6000/7000 시리즈)가 국내 출시 2주만에 7000대 판매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삼성전자 LED TV는 하루에 500대씩 판매된 셈이다.

지난 달 17일부터 주요 백화점, 직영 대리점(디지털프라자), 양판점 등 판매 매장에 속속 선보인 LED TV의 이같은 판매 호조는 작년 3월말 출시한 크리스탈 로즈 디자인의 보르도 650이 출시 20일만에 5천대 판매된 기록을 앞서는 것으로, LED TV에 대한 소비자의 집중적인 관심이 판매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파브 LED TV 판매 현황을 인치대별로 살펴보면 55인치가 1,500대(21%), 46인치가 3,100대(44%), 40인치 2,400대(34%)로, 46인치 이상 대형 인치 제품(4,600대,65%)이 주로 판매됐다.

삼성 파브 LED TV 판매 중 3대 중 2대가 46인치 이상 대형 제품으로, 대형 인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5인치의 경우 프리미엄 제품인 LED 7000 시리즈가 LED 6000 시리즈보다 300대 가량 많은 900대가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이 55인치 대형 TV 구입 시 프리미엄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삼성전자가 지난 달 28일 선보인 LED TV 광고도 인기를 얻고 있다.

새로운 빛의 TV의 탄생을 알리는 '별의 이동'편과 삼성 파브 LED TV만의 초슬림 디자인을 보여 주는 '핑거슬림' 편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향후 '빛의 화질'과 '친환경성' 등 삼성 파브 LED TV의 특징점을 강조한 새로운 광고를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LED TV 광고캠페인과 함께 차별화된 기술력을 알리는 다양한 마케팅도 펼친다.

삼성전자는 '빛의 TV 삼성 파브 LED, 이 세상 최고의 빛의

축제를 테마로 이달 21일까지 LED TV(6000/7000 시리즈) 구매 고객 중 3명(동반 1인 포함)을 추첨, 6일 일정으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와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구단 첼시의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LED TV(6000/7000 시리즈)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세계적인 디지털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작품(수련, 묵죽도, 해돋이인상을 주제로 한 3가지 작품)이 담긴 USB를 증정한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마케팅팀장 김의탁 상무는 "기존 TV와는 본질부터 다른 '삼성 파브 LED TV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빛의 화질'을 선보이며 4년 연속 세계 1위의 자리를 빛낼 것"이라며,"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은 삼성TV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1위의 한 주축이라는 자부심을 국내 소비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삼성SDI, 저전력 · 고효율 기술로 수요 확대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PDP 모듈사업은 작년 두 회사의 통합경영으로 올해는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를 위해 양사는 저전력 · 고효율 기술을 기반으로 화질을 더욱 개선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 확대하고 있다. 또 선진시장 및 성장시장 동시에 신제품을 출시하고 고효율 · 슬림 · 친환경 제품 등 차별화된 제품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중이다.

PDP TV는 자체 발광 소재로 화질 면에서 우수한 장점이 많고 대형 사이즈에서 원가 경쟁력 확보가 유리한 디스플레이이다. 저전력 · 고효율 기술을 기반으로 화질을 더

육 개선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 시장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세계 PDP TV 시장은 2008년 1390만대에서 2009년 1460만대로, 2010년에는 1550만대 규모로 예상돼 매년 5%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PDP TV는 삼성SDI와 통합경영이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400만대 이상이라는 공격적인 판매 목표를 잡았다. 올해 PDP TV는 시장 성장률(수량기준)이 4.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삼성전자는 33% 이상의 기록적인 성장세에 도전할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내세우는 올해 PDP TV의 신제품의 특징은 튜너 내장형 울트라 슬림 디자인과 소비전력을 대폭 낮췄다는 점이다. 멀티미디어 및 네트워크 연결성을 강화, 프리미엄 라인업을 공고히 했다. PDP 모듈도 고효율, 슬림형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50인치 이상 대형기종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멕시코 공장에 이어 헝가리 사업장에서도 PDP 모듈 라인과 세트라인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새로 개발해서 적용한 '삼성 크리스탈 엔진' 기술로 컬러 표현, 디테일 표현, 잔상 없는 동영상 등 더욱 자연에 가까운 화질을 제공하는 PDP TV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영화에 최적화된 화질 기술을 구현한 파브 PDP 450은 밝기와 색 온도를 극장처럼 맞춰주는 '영화모드'를 채택해 마치 영화관에 온 듯 실감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움직임이 많은 화면에서 최고의 화질을 구현하기 위해 초당 600장의 이미지를 전송하는 '600Hz 서브 필드 모션' 기술을 채택했다.

또 남동향이 많은 한국주택환경에 맞춰서 주간에 화면의 빛반사를 막는 '뉴 울트라 데이라이트 기술'을 적용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삼성전자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PDP TV의 시장점유율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

### LG전자 쿠키폰, 200만대 판매 '쾌속 돌파'



3월 전세계 판매된 폴더치폰 10대중 1대는 쿠키폰이다. 유럽 120만대, 중남미, 아시아 시장서 60만대 이상 판매되는 등 인기 돌풍이다.

소비자 중심 가격 정책과 6개월 앞선 터치 기술력이 성공의 요인으로 LG전자 MC사업본부 안승권 사장은 "LG전자는 쿠키폰을 또 하나의 텐밀리언셀러 제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LG전자의 실속형 폴더치폰 쿠키(Cookie, 모델명: LG-KP500)가 최근 전세계 누적판매 200만대를 돌파하며

또 하나의 '텐밀리언셀러(1,000만대 판매 제품)'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쿠키폰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10월 말 출시 이후 100일만인 지난 2월 중순 100만대를 돌파하고, 이후 50일만에 100만대가 더 팔리는 등 2 배 가속도가 붙어 최근에는 하루에 2만대 꼴로 팔리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s)'의 예측에 따르면 2009년 연간 풀 터치스크린 폰 시장 규모는 6,720만대이며, 매달 560만대의 터치폰이 판매된다.

이 중 쿠키폰 3월 판매량은 60만대로, 지난 3월 한달 간 전세계 풀터치폰 구매자 10명 중 1명 이상이 LG전자 쿠키폰을 선택한 셈.

쿠키폰은 지역별로도 고르게 판매됐다. 가장 먼저 출시된 유럽에서 120만대 이상, 신흥 시장인 중남미와 아시아 시장에서도 60만대가 판매됐다.

특히, 지난 3월 중순 출시한 국내 시장에서도 3주 만에 누적 판매 10만대(일 판매 최대 4,500대)가 판매되는 등 LG전자가 국내에 출시한 터치폰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LG전자 쿠키폰의 인기 비결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신중한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가격을 합리화했음에도 세련된 디자인과 혁신적인 터치폰 기능을 갖췄다는 점이다.

특히, 세계 최초의 터치폰인 프라다폰 출시 이후 앞선 터

치 기술력을 확보해 경쟁사들 보다 6개월 먼저 실속형 풀터치폰을 선보였다는 점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쿠키폰은 얇은 두께와 화려한 색상으로 날렵한 디자인을 뽐낸다. 또, 터치스크린에 손가락으로 손쉽게 원하는 메뉴를 움직일 수 있는 위젯(Widget)과 바로가기 버튼(Shortcut key) 등을 갖추고 있어 사용자들이 쉽고 편하게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즐길 수 있다.

LG전자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판매 국가를 현재 40개 국에서 2분기 중 60개 국 이상으로 늘리고, 검정색, 갈색, 은색, 금색, 분홍색, 흰색 등 총 10여가지 색상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LG전자 MC사업본부 안승권 사장은 "쿠키폰을 벤치마킹한 제품들이 전세계 휴대폰 시장에 잇따라 출시되는 것 자체가 쿠키폰이 성공했다는 반증"이라며 "LG전자는 쿠키폰을 또 하나의 텐밀리언셀러 제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LG전자, 英 '최고 휴대폰 업체' 선정



나영배 LG전자 영국법인장 "LG전자는 차별화된 제품과 영국 소비자들에 대한 밀착된 현지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인정받는 1등 업체로 인정받아"

LG전자가 전세계 프리미엄 휴대폰의 격전지 영국에서 '최고의 휴대폰 제조사(Best Manufacturer)'와 '최고의 혁신 제품'으로 선정됐다.

LG전자는 지난 19일 영국 최고 권위의 휴대폰 업계 시상식 '모바일 뉴스 어워드(Mobile News Award) 2009'에서 쟁쟁한 경쟁사들을 제치고 '최고의 휴대폰 제조사'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태양열을 이용해 충전하는 '핸즈프리 차량용 키(LG HFB-500)'이 경쟁사 대표 휴대폰들을 제치고 '최고 혁신 제품(Innovative Product)'으로 선정돼 2관왕을 차지했다.

영국 최대 IT誌인 '모바일 뉴스'가 1995년부터 시상해 온 '모바일 뉴스 어워드'는 영국의 IT 전문가 10명의 엄격한 테스트를 바탕으로 수상자가 선정되며 영국 휴대폰 업계의 '오스카상'으로 정평이 나있다.

영국은 세계 프리미엄 휴대폰 시장의 최고 격전지로 전세계 휴대폰 업체들이 가장 먼저 전략폰을 출시하는 중요한 거점 시장이다.

□ 영국 최고 휴대폰 제조사는 LG전자  
'최고의 휴대폰 제조사'는 제품, 매뉴얼, 가격, 사후 서비스, 기술 지원, 고객 증언 등 11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된다.

LG전자는 지난해 영국 시장에서 메시징폰 LG-KS360, 800만 화소 카메라폰 르노와르, 뷰티폰 등 연속 히트 모델을 탄생시키며 판매량이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쿠키폰은 최근 일판매 최고 15,000대를 돌파하는 등

최고 인기 모델에 등극했다.

또한, 유통 채널 강화를 위해 제품 교육 전담 강사 체제를 구축해 고객들에게 제품 강점을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품과 연계된 효과적인 통합 마케팅과 풀럼 축구팀 후원, F1 레이싱 대회 후원 등 현지화 마케팅 활동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단은 "협력업체와 이동통신사, 유통업체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은 업체는 단연 LG전자"라고 극찬했다.

□ 영국 최고 혁신 제품, 태양열 충전 핸드프리 차량 키 (LG-HFB500)

'최고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LG-HFB500은 자동차에서 핸드프리로 통화 가능하다. 태양광 충전판(Solar Panel)을 유리창에 부착하고 햇빛으로 3시간 충전 시 30분 간 통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특히, 이 제품은 림(RIM)의 스톰, 노키아 E71, 삼성의 F480등 쟁쟁한 휴대폰을 제쳐 눈길을 끌었다.

LG-HFB500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09 전시회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수상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다.

LG전자 영국법인장 나영배 상무는 "LG전자는 차별화된 제품과 영국 소비자들에 대한 밀착된 현지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들로부터 1등 업체로 인정받았다"며, "향후 영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